

지역 출판인들 제주 미술관에 모인다

한라도서관·지역출판연대 내달 3-5일 도립미술관서 2026 제주한국지역도서전 올해부터 제주서 상설 개최

제주를 대표하는 공립 미술관에 지역 출판인들이 한데 모인다. 제주도 한라도서관과 한국지역출판연대가 공동 주최하는 '2026 제주한국지역도서전'이 오는 7월 3-5일 제주도립미술관에서 펼쳐진다.

10일 한라도서관에 따르면 한국 지역도서전 제주 개최는 지난해 2월 발표(본보 2025년 2월 27일자 8면)였다. 그동안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치러 왔는데 2017년 1회

한국지역도서전을 제주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을 토대로 10회째가 되는 올해부터 제주에서 매년 열기로 했다.

한국지역도서전은 전국 지역출판인들의 축제다. 올해는 전국 지역출판사와 도서관 관계자, 작가, 독자, 문화예술인 등 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7월 1일부터 한라도서관이 리모델링 공사로 휴관하면서 행사장을 도립미술관으로 정했다.

이번 도서전 슬로건은 '출판(Publication)은 공공(Public)이다, 지역이 묻고 세계가 답하다'.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와 기록이 공공적 가치로 확장되는 지역 출판의 역할을 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출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한다.

도서전 기간에는 도립미술관 강당, 로비 등을 활용해 전국 40여 개 지역 출판사가 참여하는 북마켓이 차려지고 '지역 출판 포럼', 10회째를 맞는 '한국지역출판대상(천인독자상)' 시상식이 진행된다. 제주4·3과 제주 로컬 문화 주제 저자 북토크, 10주년 아카이브 특별전 '기억의 문', 전국 지역 특별전, 제주 특별전도 만날 수 있다.

한지훈 한라도서관장은 "지역 출판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제주한국지역도서전을 통해 전국 지역 출판인과 독자들이 긴밀히 교류하며 지역 출판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선희기자

기부자 뜻 기려 '한글서예관' 새출발

서예가 현병찬 선생 기부 작년 전시관 리모델링 공사 저지리 부동산·작품 활용 서예 전시·교육 공간으로

제주도는 제주 원로 서예가인 현병찬 선생이 기부한 전시관인 '먹글이 있는 집' 명칭을 '한글서예관'으로 바꿨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 한글서예관 운영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7일 본회의를 거쳐 조례가 공포되면 제주의 공공 서예관으로 본격 운영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한글서예관(제주시 한경면 저지14길 38)은 한글 서예가인 현병찬 선생의 호를 따서 명명했다. 기부자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다.

현병찬 서예가는 제주 서예 문화 발전을 위해 2021년 6월 제주도에 무상 기부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를 바탕으로 작품 1088점, 도서 4816점,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내 '먹글이 있는 집' 건축물과 토지를



제주시 한경면 저지문화예술인마을 한글서예관 전경.

제주도 제공

조건 없이 내놓았다.

2024년 6월 기부 채납 절차를 완료한 제주도는 기증자 의향을 반영해 2003년 저지문화지구에 최초로 입주한 '먹글이 있는 집'을 중심으로 문화 공간 조성 계획을 세웠고 지난해엔 4억5000만원을 투입해 전시실 내외부 벽체 등 노후 시설 개선, 진입로 보강 등 리모델링 공사를 벌였다. 공사를 마친 뒤 지난 3월부터는 현병찬 서예가의 기증 작품을 위주로 서예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운영 조례안에는 서예관 사업을 서예 전시와 교육, 서예에 관한 자료 수집과 관리 등으로 제시했다.

또한 휴관일(월요일 등), 관람료(무료), 관람 시간(오전 10~오후 6시), 사용 허가 신청과 사용료 등을 담았다. 운영은 제주도가 맡는다. 다만 조례안에는 "서예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예관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기관 등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다.

앞서 현병찬 서예가는 소유권 이전 등 기부 채납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제주도가 아름다운 한글과 제주 서예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전선희기자



초여름 풍성함 담은 6월의 실내악

제주양상블준 정기 공연 18일 제주대 아라뮤즈홀 멘델스존 현악 4중주 등

제주양상블준(사진)이 그 이름처럼 초여름의 풍성함을 담은 6월의 실내악으로 청중들과 만난다. 오는 18일 오후 7시30분 제주대 아라뮤즈홀에서 펼쳐지는 제32회 정기 연주회다

이날 연주회는 '소리의 대화'란 제목을 달았다. '실내악의 꽃'으로 불리는 현악 사중주 등을 선곡해 앙상블의 섬세

한 호흡을 객석에 전한다.

공연 프로그램은 피아노의 경쾌한 타격감과 플루트의 파도 같은 선율이 어우러지는 게리 쇼커의 '두 대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세 개의 춤곡', 이국적인 재즈바 한가운데 앉아 있는 듯한 분위기를 그려낼 폴 쉐필드의 '피아노 트리오 카페 뮤직', 정통 클래식 의 깊고 진한 울림을 담은 멘델스존의 '현악 4중주 제4번'이다. 바이올린 김상아·김은정·주성경, 비올라 부희주, 첼로 오성중, 플루트 오은지·강지연, 피아노

백진호가 참여한다. 관람권은 사전 신청(<https://m.site.naver.com/1mYAO>)해 받으면 된다.

실내악 단체 제주양상블준은 '준트리오'에서 출발했다. 단체명은 6월(June)처럼 푸르름과 생기, 열정의 음악을 나누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해설이 있는 음악여행' 시리즈, '음악의 본고장 유럽편' 시리즈 등을 기획해 클래식 음악의 문턱을 낮추고 관객과 소통하는 무대를 만들어 왔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문화가 쏙지

제2회 미식 심포지엄 개최

제주도가 주최하고 (사)코리아푸드앤와인페스티벌과 제주한라대가 공동 주관하는 제2회 미식 심포지엄이 11일 오전 11시부터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심포지엄 주제는 '미식의 근본, 건강관리·치유(웰니스)·식재료·지역(로컬)으로 돌아가자'. 문정훈 서울대 푸드비즈니스랩 소장('2026 푸드트렌드: 혼웰식, 대체면'), 이돈구 메디솔라 대표('푸드테크: 맞춤형 영양 식단 제공 솔루션'), 제주한라대 이범준 교수('제주 전통 주류문화'), 발효음식연구소 오지나의 황호진 대표('제주 발효·치유음식'), 안재민(주)제주미니 대표('제주 웰니스 관광정책'), 조남기 에기넷 공동대표('제주 웰니스 빌리지'), 한양여대 김지형 교수, 최정욱와인연구소 최정욱 소장이 참여한다.

제주문화포럼 신화 강좌

(사)제주문화포럼은 21주년 제주신화전(8월 25-9월 6일 산지천갤러리)을 앞두고 신화 강좌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다시 여는 열두 본풀이'란 이름 아래 이달 12일부터 한 달간 문화공간 제주아트를 중심으로 강좌, 워크숍, 현장 답사가 이어진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제주 신화와 본풀이가 지닌 역사·문화·철학적 의미를 쉽고 깊이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제주 신화가 단순한 옛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삶과 연결되는 살아 있는 문화유산임을 발견하는 자리다.

제주문화포럼은 이와 함께 '영화 인문학-영화 보고, 대본 읽고'란 제목으로 시민 교양 강좌를 진행한다. 한영숙 영문학 박사의 진행으로 13일부터 문화공간 제주아트에서 열린다. 참가 신청 722-6914.

AI 실습 무료 교육 운영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AI디지털배움터는 이달 18일부터 8월 2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서귀중앙 드림센터 3층(서귀포시 중동로32번길 8)에서 AI 실습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민, 상인, 크리에이터 등을 대상으로 각종 자료 조사, 문서 작성, 이미지와 영상 제작 등 지역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AI 교육으로 꾸린다. 회당 30명 내외 인원이 참여 가능하다. 사전 신청 없이 현장 접수하면 된다. 실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참가자들에게 개인 노트북 지참을 권장했다.

한편 AI디지털배움터 프로그램은 동홍동 서귀포시노인복지회관과 중앙동 서귀포우체국 2층에서도 초급 수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AI 디지털 배움터 홈페이지 참고.

당 선

한림읍



이 남 근

비례대표



김 태 현

이도2동을



한 동 수

표선면



한 동 훈

영예로운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대기고등학교 총동문회

대기고등학교 4회동창회

대기고등학교 17회동창회

대기고등학교 총동문회

대기고등학교 14회동창회

대기고등학교 18회동창회